

김한길 “호남 없는 민주당 생각할 수 없다”

민주 지도부 5·18묘지 참배...지방선거 본격 준비 새해 벽두 영호남 잇달아 방문 ‘安風차단’ 쟁점음

민주당이 2일 새해 첫 지방 일정으로 영남과 호남을 연이어 방문, 지방선거 승리와 ‘안철수 바람’ 차단에 나섰다. 민주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이 하루 일정으로, 영남과 호남을 넘나든 것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의 경쟁자로 부상할 ‘안철수 신당’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 박해자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광주·전남지역 소속 국회의원과 광역·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당직자, 당원 등 대규모 참배단을 이끌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김 대표는 참배 뒤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호남이 없으면 국가가 없었다)’라는 말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호남의 지지를 호소했다.

김 대표는 “약무호남 시무국가는 말을 많이 하는데 ‘약무호남 시무민주’라고 생각한다”며 “호남이 없는 민주당은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호남에서 민주당을 질책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을 잘 안다”며 “민주당이 도도한 변화의 흐름을 주도하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의 광주 일정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도부가 광주에 내려와 달라’는 지역의 요청에 따라 전날 오후 전격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지도부의 연초 광주 방문과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는 전례가 없었던 점에서 최근 호남에서 불고 있는 ‘안풍(安風·안철수 바람)’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당 지도부가 도착하기 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는 민주당 추산 1000여명의 당원이 모여 ‘세’를 과시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또 광주에 도착하기 전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민주와 민생과 평화를 지키

내야 하고 승리를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도 ‘안철수 신당’을 의식해 당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경남 김해 봉화마을을 방문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고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만났다.

김 대표는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나서 방명록에 “님의 뜻을 이어서 민주주의와 민생·평화를 지키고 승리를 위한 변화를

감당하겠다”고 적어 지방선거를 앞둔 결연한 각오를 내비쳤다.

이와 관련, 박용진 대변인은 “김 대표의 지난해 신년 메시지는 ‘민주주의’와 ‘민생’을 강조했다면, 어제 김 대표의 현충원 방명록에는 ‘승리’라는 단어가 더해졌다”며 “지방선거 승리의 각오가 묻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대표가 광주 국립묘지에 도착하기 앞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회원 20여 명은 쌀 목표가격과 관련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새해 지방 첫 일정으로 2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 지방선거 승리와 ‘안철수 바람’ 차단에 나선 민주당 김한길 대표를 6·4 지방선거 광주시장 유력 후보인 강운태 광주시장과 이용섭 의원이 나란히 수행해 눈길을 끌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5개월 앞 지방선거 새해 여론조사 살펴보니 광주 정당 지지도 安신당>민주당 후보선호도는 강운태 시장이 앞서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년을 맞아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대 안철수 신당(이하 ‘안 신당’) 후보들이 혼전양상을 보이고 있다.

광주의 경우 정당 지지도는 ‘안 신당’ 측이 우세하지만,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소속인 강운태 광주시장에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풍(安風·안철수 바람)’에 민주당 지지도는 크게 떨어졌지만, 지방선거인만큼 유권자들이 당보다는 후보자의 인품을 선호하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러 ‘안풍’이 오는 6월 지방선거까지 꾸준히 이어질지, 아니면 일시적인 ‘거품’에 그칠지도 주목된다.

KBS광주방송총국이 여론조사 기관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광주·전남 시·도민 각각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차기 광주시장 후보로는 민주당 소속 강운태 광주시장에 21.3%로 선두를 차지했다.

이어 민주당 이용섭 의원 13.9%, ‘안 신당’ 측 장상성 교수 10.4%, 윤장현 새정치공동체위원장 7.5%, 민주당 강기정 의원 5.9%, ‘안 신당’ 측 이상갑 변호사 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당 지지도에서는 안철수 신당이 49.8%로 민주당(28.6%)을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지사 후보로는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17.9%로 1위를 차지했으며, 민주당 박지연 의원 15.2%로 그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의 신뢰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4.4%p였다.

반면 중앙일보가 자체 조사팀을 통해 지난 달 15일부터 24일까지 각 지역 4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광주시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소속인 강운태 시장과 ‘안 신당’ 측 윤장현 새정치공동체위원장의 대결에서 윤 위원장이 44.2%로, 강 시장(38.2%)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 시장이 따라서 ‘안풍’이 오는 6월 지방선거까지 꾸준히 이어질지, 아니면 일시적인 ‘거품’에 그칠지도 주목된다.

KBS광주방송총국이 여론조사 기관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광주·전남 시·도민 각각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차기 광주시장 후보로는 민주당 소속 강운태 광주시장에 21.3%로 선두를 차지했다.

이어 민주당 이용섭 의원 13.9%, ‘안 신당’ 측 장상성 교수 10.4%, 윤장현 새정치공동체위원장 7.5%, 민주당 강기정 의원 5.9%, ‘안 신당’ 측 이상갑 변호사 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당 지지도에서는 안철수 신당이 49.8%로 민주당(28.6%)을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내부 경쟁에서는 강 시장(24.9%)이 이용섭 의원(23.2%)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전남지사 선거는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안 신당’측 김효석 전 의원과의 대결에서 46.9% 대 32.0%로 14.9% 포인트 앞섰다.

이낙연 의원은 다른 후보와 가상대결에서도 월등히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의 전남지사 후보 적합도에서는 이낙연 의원이 27.7%, 주승용 의원 24.2%, 김영록 의원 7.8% 등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3.1(1000명)~5.7%(300명)포인트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안철수, 신당 창당작업 박차

새정치 오늘 5·18묘지 참배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이 새해 벽두 서울 명동에서 신당 설명회를 하는 등 신당 창당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우선 안 의원 측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치)’는 2일 오전 여의도 사무실에서 시무식을 겸해 새해 첫 위원장단 회의를 열고 새정치 실현의 각오를 다졌다.

안 의원은 회의에서 “정치의 근본과 중심에 항상 국민이 서 있고 국민과 함께한다는 것은 간단한 얘기지만 새정치의 기본 자세

라 생각한다”며 새정치의 의미를 정리했다. 이어 “넓은 정치 행태에서 좋은 정치의 내용이 나올 수 없다”면서 “진영·정략·막말·중요·배제·무책임 등으로 나타난 넓은 정치 행태가 새해에는 없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성 정치권의 행태를 규정치로 몰며 차별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또 “1월 한 달이라도 막말 없는 정치의 모습을 여야 지도부가 국민 앞에 약속하면 좋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새정치는 연말연시 각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신당’에 대한 지지도가 민주당을 크게 앞서며 여당

서울 명동서 신당 설명회 구태정치와 차별화 시도

인 새누리당을 바짝 뒤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잔뜩 고무된 표정이다.

새정치는 이런 분위기 속에 이날 오후에는 서울 도심인 명동으로 달려가 설명회를 열어 신당 알리기에 주력했다. 새정치는 시민들에게 직접 ‘국민추진위원 가입신청서’를 배포하며 참여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국민을 직접 모시겠다”며 “여러분이 새정추에 해주고 싶은 말을 해주면 최선을 다해 그 뜻을 받들어 열심히 한 번 해보고자 한다”고 호소했다.

김효석 공동위원장은 이날 “매주 단위로

새로운 인물이 발표될 것”이라며 새정추의 후속 인선 작업이 곧 가시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새정치 윤장현 공동위원장은 2일 오전 지지자들과 함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이날 참배에는 안 의원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광주·전남 실행위원들과 향후 창당될 ‘안철수 신당’에 합류할 인사와 지지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6·4 지방선거에서 ‘안철수 신당’ 측 광주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윤 위원장은 이날 “시민들의 기대와 바람을 제대로 받들어 함께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소통해 진정한 광주의 정신이 발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새누리, 시·도당 정비 착수

황우여 “1월 중 지방선거 틀 잡아야”

새누리당은 2일 새해 시무식과 동시에 6월 동시 지방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당 체제 정비에 착수했다.

새해 예산안과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주요 법안들을 처리하며 한 고비를 넘긴 만큼 올 정치일정 중 가장 중요한 지방선거에 당력을 집중해가는 흐름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립현충원 참배에 이어 여의도 당사에서 시무식을 열어 일제히 지방선거 필승을 다짐했다.

서울시를 비롯한 17개 시·도당 역시 잇따라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고 조직 정비에 들어갔다.

황우여 대표는 시무식에서 “우리는 정체

된 보수가 아니라 끊임없는 쇄신과 개혁을 해나가는 개혁적 보수를 지향한다”면서 “당의 이념과 가치를 국민에게 분명히 알리고 지켜서 국민의 사랑과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황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지방선거와 관련, “2월 초면 이미 주자들이 예비후보등록을 마친다”면서 “1월 중 지방선거의 틀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말까지는 여당으로서 예산과 법률안 처리에 집중했지만, 이제부터는 선거 승리를 위해 지방선거기획단 구성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1.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13층 53평
전체 올수리, 코너, 주거겸사무실(방2, 거실)
보 2천만원에 월100만원 임대가능
대출 8,000만원 가능
시세/분양가, 2억 정도
매매가, 1억 5500만원

사정상 “매매”

2.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상가, 1층 25평
현, 편의점 임대 중
(보 3천만원에 월 125만원)
대출 8,000만원 가능
시세/분양가, 2억 5천만원
매매가, 1억 7500만원

경매투자

1. 특수비법 배우실 분!
배우면서 투자가능
교육비 1,200만원
2. 경매에 투자 하실 분!
수익률 연 20% 보장
3. 경매물건 사실 분!
최소비용으로 처리
4.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사용료 연 1,200만원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